

불교+심리학, 실생활에 응용

대구에 '마음불교심리연구소' 개소 명상기법 활용 다양한 건강요법 개발



마음불교심리연구소 류정수 소장이 9월 15일 개소식에서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교를 현대 심리학의 다양한 기법들과 발전적으로 결합시켜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의 회복과 진정한 자기실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양심리학과 불교를 접목해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불교심리연구소가 대구 남산동에 문을 열었다. 9월 15일 개소식을 가진 마음불교심리연구소(소장 류정수)다.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서양학문으로 약 20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그러나 마음의 종교인 불교는 이보다 2000여년을 앞선다.

또, 불교는 유식학(唯識學)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음현상과 구조, 마음 단계에 따른 마음 다스리기와 깨달음의 방법들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관념적으로 변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 피드백(feed back)도 거의 완벽하다는 것이 류 소장의 말이다.

류정수 소장은 "고등학교 불교학생활 출신으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심리학의 현대적인 기법을 불교에 접목한 다면 불교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

라는 생각에서 연구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마음불교심리연구소는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만 의미 접근이 쉽지 않은 꿈을 불교적 원리와 방법으로 규명하고 접근할 계획이다.

마음불교심리연구소는 연구와 수련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이룩할 예정이다. 사마타(삼매, 위빠사나(관법), 아나파나(사티(호흡관법) 등의 불교적 수련관좌와 꿈의 원리와 해석 마음 원리강좌를 진행하고, 꿈의 원리를 불교적으로 규명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불교의 명상기법과 콘텐츠들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심리요법들을 개발 공개할 예정이다. 그 외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적 요소(수맥파, 지자기 등)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불교심리연구회의 설립도 생각하고 있다.

개소식에서는 류정수 소장과 대지불교심리연구소장 현오 스님이 공저한 <꿈과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다.

<꿈과 마음의 비밀>은 류 소장 현오 스님이 꿈의 원리와 해석 방법, 마음의 구조를 불교유식의 관점에서 2년 여간 연구하고 접근을 시도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개소식에는 은혜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재가불자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053)428-4281

글·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불교계합창단 은상 수상 대구시 주최 시민합창대회서

대구지역 불교계 합창단이 대구시가 주최하는 지역시민합창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구불교방송 만다라합창단과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가톨릭가 합창단이 9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달구벌시민합창경연대회에서 각각 은상을 받았다. 또, 만다라 합창단 류성욱 지휘자가 우수 지휘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대회에서 우승한 수성구합창단을 비롯한 16개 팀이 참가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열어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주지 도륜)이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을 초청해 9월 9일 경로잔치 한마당을 벌였다.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은 지난 연꽃음악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2000여만 원 중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연과 점심공양적 요소(수맥파, 지자기 등)에 대한 연구도 계획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구미 도리사 아도화상 차례제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이 11월에 부처님

의 법을 전한 아도화상을 기리는 차례제를 10월 1일 오후2시부터 봉행한다.

차례제는 육백공양에 이어 지역청소년 14명에게 아도화상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지역 8개 읍면주민 16명이 참가하는 노래자랑대회와 산사음악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가족사진 콘테스트 개최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서현)은 9월 15~24일 '행복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가족사진 콘테스트는 아동학대에 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새겨보도록 가족의 의미를 새겨주고, 행복한 가정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응모작은 인터넷 응모시스템(gumi1391.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사진을 용량 500Kb이하로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시 사진크기는 15cm×10cm로 제한한다. 접수장소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앞오로보내면 되며 24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시상식은 10월 13일 오후 7시 가족 제주도 여행권, 가족사진 촬영권, 10만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 등 다채로운 부상이 주어진다. (054)455-1391 배지선 기자

'217일 광명기도법회' 시작 해인사, 비로전 건립 위해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경당에서 비로전 건립봉사를 위한 광명기도법회를 입재한다.

이번 법회는 비로전 주지 부처님 복장불을 새롭게 봉안하고 개금 점안식을 봉행하면서 시작됐다. '217일 광명기도법회'를 21일 회향함에 따라 다시 시작되는 제2차 법회다. 현재 보경당에 있는 비로전나불은 비로전 건립 후 이전될 계획이다.

기도 시간은 새벽 3시, 오전 9시, 오후 2시, 저녁 6시로 하루 4번이며 주말에는 밤9시~새벽3시 철야기도를 한다.

해인사는 비로전을 밝힐 인등도 동참금 1만원에 접수받고 있으며, 보경당에 밝혀진 인등은 비로전 건립 후 비로전으로 이전 된다. 기도 동참금은 100일에 10만원. (055)934-3105-6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성식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사무간사



포항불교사암연합회 김성식(40) 재가사무간사. 2004년 범불교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상시장의 성과를 받아낸 젊은 불자중 하나다.

정보통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김 간사가 매일 밤을 낮 삼아 새우며 지역 스님들을 모시고, 포항 뿐 아니라 전국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나간 결과 포항은 재가불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지게 됐다.

웅크리고 있던 재가불자들도 하나씩 깨어나 지난해 5월에는 포항불교신도단체협의회까지 구성했다.

"불자들이 올바른 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불교대회도 있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바로 알려지도록 재가불자들의 역할을 키

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재가 불자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바른 불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의 이 생각은 그의 활동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재가 사무간사를 맡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역 스님들이 포항불교계를 위해 활동을 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승가와 재가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야 하는 막중 소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크다.

김 간사는 또 지난해 말 (사)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청년불자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등번호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범불교대회 주도 종교편향 시장 사과 받아내

불청대회 개최 등 청년불자 활성화에 진력

위안하다"고 강조하는 김 간사는 포항신도단체협의회에서도 사무국장직을 맡아 굿은 일을 도맡았다.

스스로를 '심부름꾼'이라고 칭하며 한발 뒤에서 교계 선배들의 활동을 지원해왔던 김 간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포항재가불자들이 다시 불심을 끈주세우고 조직과 틀을 갖추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불교학생회(37대) 출신 지역 토박이 불자다. 한때 친구 따라 교회에 갔던 경험으로 더욱 불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영천 거동사로 첫 수련대회를 다녀왔는데, 당시 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되새겨보도록 가족의 의미를 새겨주고, 행복한 가정상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응모작은 인터넷 응모시스템(gumi1391.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사진을 용량 500Kb이하로 사이즈를 조정해서 보내면 된다. 우편접수시 사진크기는 15cm×10cm로 제한한다. 접수장소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앞오로보내면 되며 24일 소인까지만 유효하다.

시상식은 10월 13일 오후 7시 가족 제주도 여행권, 가족사진 촬영권, 10만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 등 다채로운 부상이 주어진다. (054)455-1391 배지선 기자

지역에 청년불자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는 경북 지구불청대회도 개최했고, 가을산행도 준비하고 있다.

"포항불교청년회가 40년을 이어오는 동안 자료 하나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청년불교회관을 마련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청년회의 재정을 자체 충당하기 위한 '일일호프' 행사도 가질 계획이며, 청년회비블 CMS 청년후원계좌로 입금하도록 권하고 있다.

"범불교도대회를 치르며 참도반을 만나 행복했고, 불교적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왔다"는 김 간사는 "청년회 임원을 맡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대한 미안함이 늘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부처님 심부름꾼 하면서 얻은 마음의 평화를 가족이 함께 느끼고 이해해 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영주지사: (054)634-3429

대구 보현사 대입전략 특강 실시

100일 기도정진 학부모·수험생 위해 마련



11월 16일 대입 수능 시험일을 70여일 앞두고 동화사지하포교당 보현사주지 지열가 수험생을 위한 대입전략 특강을 9월 10일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립 능인고등학교 연구부장 광병원 교사가 수시2학기모집 주요사항

과 지원전략을 소개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미래 사회직업세계의 변화양상과 유망직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EBS가 9월부터 시작하는 수능 총정리 강의를 꼭 들어보고, 최근 2-3년 사이의 기출문제와 지난 6월1일-9월6일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어 유형을 파악해 두라"고 권했다.

보현사는 수능 시험일까지 두 번의 특강을 더 계획하고 있다. 10월 15일에는 손한의원 손창수 한의사가 환절기 수험생 건강 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11월 5일에는 대구대 김중호 교수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절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귀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 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압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功)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확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무공향
現 권 신선암 주지
現 참선공 협회 총재
現 치유명상 협회 총재
現 임상최면 협회 총재

◆ 참선공의식 사례

-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② 60세 중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월부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걸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⑤ 50세 중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리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 앞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 2006. 9. 21 (목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예약)

전 수 비 200만원

일 급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권 신선암 대한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